

## 가나모리 가문 주택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유명한 가나모리 가문 주택은 무사나 장인 또는 상인들의 집, 신사와 사찰 등이 좁은 범위에 나란히 서있는 오모리 마을의 수많은 역사적 건물 중에서도 사람들의 눈길을 잡아 끄는 주택입니다. 1850 년에 지어진 가나모리 가문 주택은 튼튼해 보이는 회반죽 벽, 가문의 문장이 장식된 산가와라부키 지붕(파도가 치는 듯한 모습의 기와 한 종류를 겹겹이 포개어 나란히 이은 지붕), 내화성을 갖춘 안채에서 독립된 형태의 토광 등 많은 부분이 전형적인 상인의 저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맞배지붕의 한쪽 끝에 현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모리에서 대부분의 입구는 바깥의 길을 마주한 긴 면에 놓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는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건축적 특징은 2 층에 큰 길 방향으로 창문이 나 있다는 점입니다. 에도 시대 오모리에서는 관리가 큰 길을 지날 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은 불경한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주택을 본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1867 년까지 이와미 은광의 중앙 행정기관이었던 부교쇼(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관청)에 돈을 빌리기 위해 오모리를 찾아온 사람들의 숙소로 사용된 가나모리 가문 주택에서 넓은 2 층은 필수적이었습니다.